GIST, 2024 가을학기 도란도란 언어교환 프로그램 첫 세미나 성황리 종료

- 내·외국인 학생 26명 참여, 의생명공학과 이상준 교수 주관 첫 세미나
-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... "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"

▲ 2024 가을학기 언어교환프로그램 '도란도란' 1차 세미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올해 가을학기 언어교환 프로그램 **'도란도란'이 첫 세미나를** 지난 10월 10일(목) 의생명공학과 이상준 교수 주관 하에 런치 세미나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.

'도란도란'은 **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며,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**하는 것이 특징이다. 이번 세미나에는 총 26명의 내·외국인 학생이 참석했으며, 한국 학생 13명과 외국인 학생 13명이 짝을 이뤄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하며, **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해**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▲ '도란도란'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

도란도란 프로그램은 가을학기 동안 세 차례의 세미나로 구성되었으며, **11월 13일(수) 2차와 12월 4일(수) 3차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학습이 기대**된다.

세미나를 주관한 고광희 대학장은 "**도란도란 프로그램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**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"며, "향후 개최될 세미나에서도 **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**하겠다"고 밝혔다.

본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GIST 언어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참가 학생들은 언어교환 외에도 다양한 세미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.